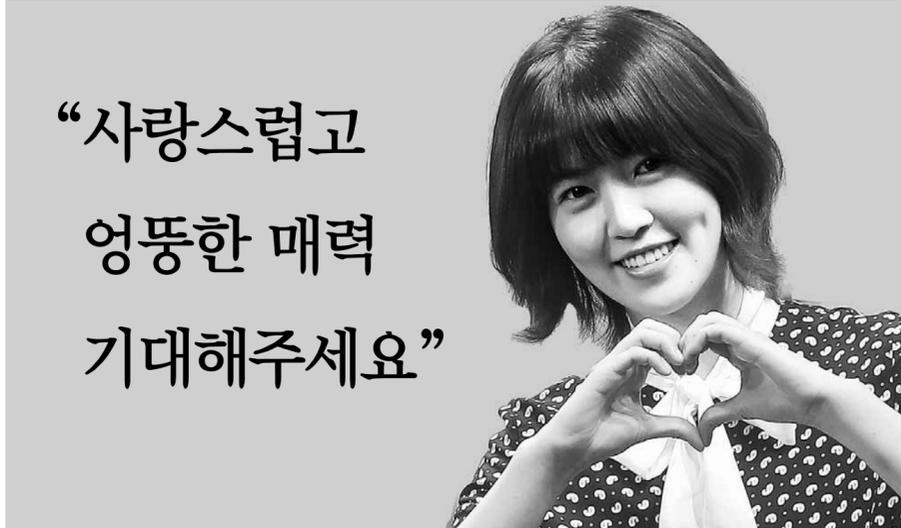


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30 굿모닝 A 1부	00 KBS 뉴스광장	00 튠트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10 아침경제 골든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8 10 굿모닝 A 2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정담동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들춰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1박 2일	30 MBC 생활뉴스 55 568돌 한글날 경축날	10 SBS 대기획 (비밀의 문)(재)
10 10 시사인사이드	00 중계방송 훈민정음 반포 제568돌 한글날 기념식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튠트생활체조		35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재)	
11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한글날 기획 우리말 겨우기 55 바른말 고운말(재)			25 생활발전 유레카
12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0 리얼한국정치가 이방인 1부~3부	30 나는 남자다 (최고의 순간들)	35 MBC 뉴스 45 라디오스타 스페셜	25 SBS 뉴스 35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재)
1 30 뉴스 특급		50 출발 드림팀 시즌2 (아빠와 나)(재)	05 주말특별기획 (마마)(재)	50 2014 프로축구 (울산·서울)
2 40 직인직설	40 강연 100c 특선(재)			
3 55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KBS 뉴스 10 한글날 특선 앙코르 세종대왕으로 통하다(재)	00 가족의 품격 플하우스(재)	15 추억과 보상. 여기는 충청속제	
4 55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시사진단 55 튠트 생활 체조(재)	10 2014 영화의 바다로 4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스페셜 (이덕화 편)	50 정용승 동요 합창경연대회	00 웃음을 찾는 사람들(재)
5 00 KBS 뉴스 10 동물의 세계 40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30 생생 정보통	10 MBC 뉴스 20 생방송 빛날	15 롬메이트 베스트(재)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50 일일 드라마 (배구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법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모큐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0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특별기획 코리아 지오그래픽 50 쇼터	00 수목 드라마 (아이언맨)	00 수목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00 드라마 스페셜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불멸의 이순신	10 해피 투게더	15 제3의 써드아이 (파일럿)	15 자기야
12 20 카톡스 S ①:30 광화문 콘서트(재)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항철의 올댓 뮤직 ①:40 글로벌 도시전경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아리 ①:3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20 MBC 뉴스 24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우리가락 우리문화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①:05 열린예술무대 뒤란



KBS '내일도 칸타빌레' 설내일 역 심은경

앞서 일본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의 한국판 드라마화 소식 이 전해지자 주인공 '노다메' 역을 과연 누가 맡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우에노 주리가 분한 일본 드라마의 노다메가 개성적인 매력으로 워낙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몇몇 배우가 물망에 올랐다가 마니아 팬들의 호화를 맞았지만, 그래도 이 배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KBS 2TV 월화극 '내일도 칸타빌레'의 주인공 설내일 역할을 맡은 배우 심은경 이야기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내일도 칸타빌레' 제작발표회에서 심은경은 작품 선택이 부담되지 않았냐는 물음에 "어딘가 모르게 작품에 끌렸다. 스스로를 말할 수 없어서 작품을 선택했다.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심은경도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이번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설내일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아무리 행동을 막 해도 기본적으로는 사랑스러움을 유지하려 한다. 우스꽝스러운 수는 있어도 우악스럽게는 보이지 않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면이 있다"면서 촬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고백하기도 했다. "워낙 주리 씨가 연기를 잘해서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드라마도 오랜만이라서 처음에 촬영하면서 많이 헛갈렸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도 했고, 피로가 누적되고 과부하가 걸리면서 스스로 정체했다는 생각에 촬영장 구석에서 울기도 했어요." 그는 하지만 "너무 고민하면 캐릭터에 진정으로 빠져들지 못하겠더라. 지금은 고민하기보다 다른 스태프,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만들어 가며 드라마를 즐기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은경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추는 배우 주원(차유진 역)에 대해서는 "주원 '오라방'이 너무 잘 맞췄다. 설내일이 개성이 있는 역할이라 연기를 받아주시기 체력적으로 힘들텐데 잘 받아주신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어 "나는 무조건(주원에게) 안긴다. 밀치면 내던지긴 일단 무조건 반사적으로 안긴다(웃음). 나도 모르게 역할에 빠져들기 때문에 설레기도 한다.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드라마로 많이 공부하는 것 같다"면서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설내일 역할이 확정되기까지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말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제안을 받고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이라며 "스케줄 변동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말당이나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내일도 칸타빌레"는 클래식 거장의 꿈을 키워가며 열정을 불태우는 정춘의 사랑과 성장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한음음악대학교'를 배경으로 지휘, 피아노, 바이올린, 팀파니, 오보에 등 각자 분야에 인생을 건 학생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의 노다메인 설내일은 해녀 엄마와 조랑말을 키우는 아빠 사이에 태어난 '제주도의 딸'로 4차원적 정신세계를 소유한 트러블 메이커다. 하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엉뚱 발랄한 매력을 지녔고 피아노 연주도 천재적이다. 4년만에 브라운관에 주연으로 복귀하는 심은경은 "내 지금 모습과 음악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의 '설내일'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가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팬이 많은 작품이라 이 역할은 우에노 주리만의 것이 아닐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여러 분들께 도움을 받으면서 연기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잘하고 있다' 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헤뎠다' 보다는 '지켜봐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3일 첫방송 된다.

“문지상, 시늬에 딱 두줄...안하려 했다”

MBC '왔다! 장보리' 문지상 역 성혁

장안의 화제작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가 종영을 단 2회 남겨두고 있다. 촬영은 이미 모두 끝났고 제작진은 지난 6일 종파티까지 했다. 새파까지 종파티 현장을 즐겼던 '문지상'을 그 몇시간 뒤인 7일 오전 광화문에서 만났다. 문지상을 연기한 배우의 이름은 성혁(30·홍성혁·사진)이다. 문지상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트를 벗어던지고 경쾌한 후드티 차림으로 나타난 성혁은 "이런 드라마를 만나 행복했다"고 말했다. 문지상은 '왔다! 장보리'에서 악역 연민정(이유리 분)의 악행에 마디마디 제동을 건 유일한 인물. 그가 없었으면 드라마가 후반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판 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다. 성혁은 극중 이름인 '문지상'으로 개명하라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이 역할 덕분에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됐다. 시청률 40%에 육박한 드라마의 인기로 많은 이들이 그의 본명을 몰라도 그가 문지상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다. "드라마가 인기라는 건 알지만 제 인기는 잘 모르겠어요. 연기를 하루아침 할 것도 아니고 문지상이 대박이 났다고 제 앞날이 엄청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는 지난 2005년에 데뷔한 중고 신인이다. SBS '해변으로 가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알고보면 '하루아침'에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한계단식 올라 2010년에는 KBS 2TV 주말극 '결혼해주세요'에서 주인공 가족의 막내아들로 출연했다. 그가 한때 '똥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결혼해주세요' 직후다. 하지만 그는 LTE급으로 잊혀졌고 그때의 '쓰라린 경험'으로 지금은 마음을 다독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를 것 같다. 성혁은 문지상의 인기를 바탕으로 11월 방송을 시작하는 KBS 1TV 일일극 '당신만이 내 사랑'의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곧바로 차기작에 캐스팅된 데다 조연에서 주연으로 올라선 것이다. 그는 "물론 드라마가 잘돼서 좋고 문지상을 기억해주셔서 좋다. 하지만 들뜨기보다는 이 힘을 받아서 다음 작품을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시 '왔다! 장보리'로 돌아와서, 하마터면 그는 문지상이라는 옷을 입지 못할 뻔했다.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어요. 시늬시늬에 딱 두줄 설명이 나온 인물이었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인 PD님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는 출연을 결심했죠. 후반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김순옥 작가님이 절 안중개 보냈어요. 첫마팅에서 제 태도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깝잖아 솔직하게 저를 드러내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이 강한 캐릭터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백 PD님이 다시 작가님을 설득하셨죠." 그렇게 합류한 드라마를 통해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제대로 받았다. 악역 연민정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드라마의 시청률이 상승곡선을 그렸는데, 놔두면 끝없는 이어질 같은 연민정의 악행을 문지상이 때면 '슈퍼맨'처럼 극적으로 차단하거나 까발리며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줬기 때문이다. 그는 "문지상과 연민정(이유리)의 케미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민정 앞에서는 분노에 이글대지만 문지상은 눈물도 많이 쏟아냈다. 말 비탄이 앞에서다. 특히 종영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눈물 연기는 물이 올랐다.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 그 자신도 깊게 몰입이 된듯 느껴졌다. 제작진이 그에게 "혹시 숨겨놓은 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폭발하는 감정 연기를 소화했다. 성혁은 이 대목에서 말문이 트였다. 한때 연기를 너무 못해서 촬영장에서 울어버린 적도 있다는 그는 "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기에 깊게 보면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14:00 시계마을 티키투크	17:30 로보카 폴리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생활백과〉	14:15 치료와 친구들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10 세계경문목 아틀라스	14:30 미술탐험대	18:00 생방송 투데이! 보너스
07:00 시계마을 티키투크(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4:45 미연미로봇	19:00 콘
07:15 콘(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30 EBS 뉴스
07:30 책과 땅(재)	11:20 세계대미기행	15:15 어린 왕자	19:50 달라졌어요(재)
07:45 로보카 폴리(재)	〈배랑과 조원의 땀, 몽골〉(재)	15:30 정글북	20:40 다류 오늘
08:00 당동당 유지원	12:00 EBS 정오 뉴스	15:45 꼬미와 친구들	20:50 세계대미기행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한글날 특집	16:00 당동당 유지원	〈러시아 불가 강〉
08:35 방귀대장 뽀롱이	〈위대한 문자, 한글의 재발견〉	16:20 버블버블 마린	21:30 한국기행 〈경주〉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05 역사채널E	16:35 원더 볼츠	21:50 EBS 스포츠 프로젝트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3:10 부모광장(재)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40 내 이름은 펭키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23: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09:35 따개비루	13:50 뛰뛰 뻥뻥 울리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05 역사채널 E(재)

EBS플러스1

00:00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한국사〉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한국지리〉
07:00 시계마을 티키투크(재)	11:40 박범의 이수료 만나는 경제
07:15 콘(재)	12:15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07:30 책과 땅(재)	13:05 " (수학 I B형)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 (국어 B형)
08:00 당동당 유지원	14:00 " (물리 II)
08:20 뽀롱뽀롱 뽀로로(재)	14:50 " (화학 II)
08:35 방귀대장 뽀롱이	15:40 " (생명과학 II)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6:30 " (지구과학 II)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7:20 " (사회문화)
09: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8:10 " (경제)
09:35 따개비루	19:00 " (영어)
	20:00 EBS-N제 〈국어 B형〉(재)
	21:00 " (수학 B형)
	22:00 인터넷 수능 〈문학B형〉

EBS플러스2

07:00 경비지도사 시험대비 강좌	15:50 " 〈과학 4-2〉
07:30 실용관찰 비법 노트 〈5-2〉	16:20 " 〈과학 5-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 〈과학 6-2〉
08:30 매강 TEST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수학집중 6-2〉(재)
09:10 TV 중학	〈국어①②〉
09:50 " (영어 1)	18:00 TV 중학
10:30 " (도덕 2)	18:40 " (역사 3)
11:10 " (국어③④)	20:00 EBS 인문학 특강
11:50 " (영어 2)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등업산공	〈사회 1〉
13:10 " (역사 1)	21:40 한국기행
13:50 " (역사 2)	22:00 등업 산공
14:30 " (사회 2)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주제별)
15:20 만점왕	〈과학 3-2〉
	23:20 중학e포스 영어독해(유형별)
	24:00 EBS 역사 특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9월 16일 癸酉)

子 36년생 불리하는 것이 편하다. 48년생 서서히 안정 궤도에 진입하는 형상이다. 60년생 소박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72년생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84년생 주변인의 명예 귀 기울이자. 행운의 숫자 : 67, 01

丑 37년생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함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49년생 실제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잘 하자. 61년생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73년생 정치는 무의미하다. 85년생 직할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3, 16

寅 38년생 오랜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사람을 만나라. 50년생 해독은 문제점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일시에 해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2년생 부귀가 따르겠다. 74년생 끝맺음이 알찰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7, 84

卯 39년생 객관성을 일탈한다면 후유증을 동반하면서 하강 국량으로 유도한다. 51년생 속단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63년생 절만 추스르다면 흥이 변하여 길하게 되리라. 75년생 큰 판국으로 진입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42

辰 40년생 쉽지 않은 것을 것이니 맹목적인 낙관은 금물이다. 52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64년생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76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믿어 붙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8, 12

巳 41년생 칭찬이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53년생 확립적이고 단편적으로 비교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 65년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77년생 지금 있는다면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79

午 42년생 물이 깊은 곳에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54년생 조건에 부합하면 될 것이다. 66년생 너무 늦었으니 살기하기 전에 서둘러 하느니라. 78년생 시작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0, 86

未 43년생 덕을 베푼다면 머지않아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55년생 웃음이 얼굴에 가득할 것이다. 67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할 국면이다. 79년생 시작은 좋지않은 원활한 마무리가 아쉽다. 행운의 숫자 : 29, 21

申 44년생 황금과 같이 귀중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56년생 주변의 여건과 조화를 이뤄야만 시의적절한 관세를 이루게 된다. 68년생 돈이 관건이다. 80년생 아무 것도 아니니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7, 30

酉 45년생 다름과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성이 요구된다. 57년생 소모적이라면 신속히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69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지 말라. 81년생 설득력 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6, 38

戌 46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자. 58년생 상호 보완해야만 하는 것이 산재해 있다. 70년생 차분하게 임해야 하나씩 해결 될 것이다. 82년생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자. 행운의 숫자 : 74, 91

亥 47년생 결정적인 때에 변집함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한다. 59년생 나이전 만큼 더 많은 번거로움도 따른다. 71년생 변함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자. 83년생 정확한 정세 판단이말로 성사 여부를 좌우 한다. 행운의 숫자 : 75, 0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